

GAP를 통한 농식품 중 유해물질 안전관리

유해물질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필수적

국가마다 자국농업보호와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종류 확대 및
규제기준을 강화하여 미국은 Zero Tolerance System을, 일본과 유럽연합은 PLS제도를,
우리나라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를 시행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은 이에 필요한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설정, 보급하고 있다.

최근 식품 중 유해물질 검출 등 잇따른 식품안전사고로 불안해진 소비자의 식품선택 기준이 수량과 가격에서 품질·안전성 중심으로 바뀌지면서 유해물질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적으로 자국민이 소비하는 농식품에 대한 안전성은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가 설정되어 자국생산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입원료 농산물,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정부주도형 안전관리를 확립하고 있다.

또한 국가마다 자국의 농업보호와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를 확대하고 규제기준을 강화하여 미국은 Zero Tolerance System을 시행하고 있고 일본과 유럽연합의 경우는 PLS를 도입하는 등 농산물안전성 관련 국내외적 여건

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GAP, 오염원 사전차단 가능 실천적 방안

국내의 경우 농정의 핵심목표는 ‘고품질의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이다. 안전한 농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이러한 공급체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재배단계에서 유해물질이 잔류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 안전한 농식품 원료가 생산되도록 하고 둘째, 농산물이 수확, 출하될 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여부를 판별하며 셋째, 출하 후 시중 유통중인 농식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적합한 농식품을 적발, 필요시 오염원을 파악하고 해당 농식품 수거 폐기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공급체계를 소비자가 신뢰하여 지속적인 구매활동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단계에 기록이 보관되어 문제발생시 신속한 역추적 및 문제해결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유해물질을 작물재배과정에서부터 사전예방 중심으로 하는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안전농식품 공급체계를 제도화하여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를 시행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은 이에 필요한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설정, 보급하고 있다.

GAP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재배단계부터 작물 중 잔류농약, 중금속, 독소 등의 유해물질 오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FAO, CODEX 등 국제기구 및 선진국은 GAP가이드라인을 확립하여 안전농산물 생산 및 관리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 안전먹거리 보장에 주어야

유해물질안전관리를 위한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그 뜻을 단어 그대로 우리말로 의역하자면 '농사 잘 짓는 기술'이다. 최근 들어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려면 GAP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에게 GAP, 즉 '농사 잘 짓는 기술'이 예전에는 없었을까? 그 대답으로서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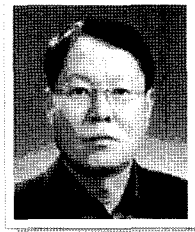
사 잘 짓는 기술'을 실천하여 왔지만 시대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져 왔을 뿐이다.

60~70년대 식량이 모자라던 시대에 '농사 잘 짓는 기술'은 농산물을 다수확 하는 기술이었고 그것이 곧 그 시대의 GAP였다. 즉 다수확품종을 육종하고, 가능한 시비량을 늘리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완전히 박멸하는 등의 수확량을 최대 늘리기 위한 농사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80~90년대의 GAP는 품질향상을 위한 농사기술이 많이 실시되었다. 우수품질 보유 품종 육종기술, 관수 및 시비기술, 저장기술 등 농식품의 외형, 색, 맛 등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 기호를 충족시키는 품질향상 농사기술이 이 시대의 GAP라고 말할 수 있다.

90년대 이후 21세기에 들어서는 농식품의 수량, 품질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보호하면서 농사를 짓도록 하여 농업환경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농사기술이 권장되었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에너지 투입을 최소화 하는 농사기술이 이 시대의 GAP로 인식되었다.

최근에 들어서는 농식품 수량이 풍부해지고 품목도 다양해졌으며, 품질도 좋아진 시대에 Well-being 열풍의 영향으로 소비자는



권오경
농촌진흥청 유예외역과



GAP를 통한 농식품 중 유해물질 안전관리

좀더 영양가 있고 기능성이 있는 농식품을 선택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더욱이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식품안전사고도 계속 발생되면서 이에 불안해진 소비자는 안전성까지 확실히 보장된 농식품을 찾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시대의 GAP는 안전성이 확보된 농식품을 생산하는 농사기술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즉, 농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농업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농업기술이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이 시대의 GAP다.

이와 같이 생산과정에서 농식품의 안전성이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관리되고 이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GAP체계가 확고히 정착된다면 지속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소비자가 가격과 품질 대비 안전성이 확보된 농식품을 구매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한 농식품 생산은 우리 소비자와 농업인을 위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개방화 시대 '우리 농식품은 안전성에 있어서는 최고'라는 브랜드로 국제경쟁력도 견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말했듯이 국가의 국민이 먹을 것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언젠가 다가올지도 모를 식량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먹을 것이 안전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할 소임이 있다.

세계 '일류 농산물·최고 안전성' 위해 매진

다행히도 국내에는 미국의 ARS(농업기술청)처럼 농업기술개발과 영농기술지도, 농업인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있다. 특히 안전농식품 생산을 위해 정밀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해물질 잔류모니터링과 이를 근거로 한 위해성평가, 국제적 규제대상 유해물질의 관리기준 설정,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가이드라인 설정 등 유해물질 종합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불량품을 잘 걸러내는 방법뿐만 아니라 불량품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 검증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 먹을거리에 대한 기대와 바람에 부응할 수 있는 세계일류 농산물, 세계최고 안전성 구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Y

